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646. 832. 7397

212. 736. 8500 (EXT 355, 3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eoulsb@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 Jordan, OFM

지도신부 : 이윤희 루카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luke0829ofm@gmail.com

전교수녀 : 안 마리루시 (투스캄포교베네딕도회서울수녀원) seoulsb@gmail.com

사목회장 : 이지연 안나레지나 917. 282. 1662

제1독서 | 민수 6,22-27

화답송 | 시편 67(66),2-3.5.6과 8(◎ 2ㄱ)



(후렴)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 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 서.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겨레들을 이끄시니,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

새해를 맞이하며 바치는 기도

- 시작이요 마침이신 주 예수님,
지난 한해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 저희가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주시어
새해에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맡은 책임을 다하여
가정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 또한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께
바치오니
하느님의 영광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도와주소서.
- ◎ 아멘.

제2독서 | 갈라 4,4-7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이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 알렐루야.

복음 | 루카 2,16-21

영성체송 |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또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

성가 | 입당 239

영성체 177(176)

예물준비 221(215)

파견 238

미사 봉헌

연미사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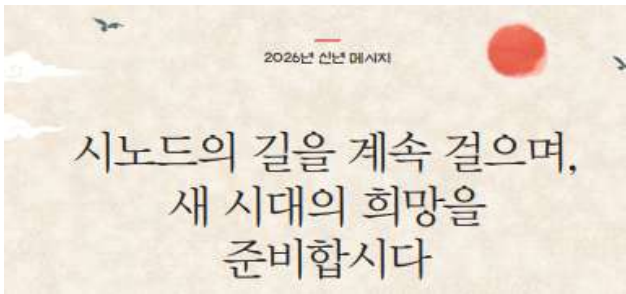
- 김영우 요셉, 강건대 마리아 부부
- 황서진 소피아, 황하영 마태오
- 이병하 요한, 현복연 안나
- 유재선 올리비아의 안식
- 김옥희 바울라
- 성인규 요셉, 성옥자 마리아

생미사 지향

- 김소영 사비나, 김지영 유스티나, 김은영 마르셀리나
세 자매의 영육 건강을 위해
- 이슬기 라파엘라, 이상엽 바오로의 가정
- 윤숙경 마리아의 영육 건강을 위해
- 유기호 & 진문자 가정을 위해
- 김동광 & 김종선 가정
- 민완준 필립보의 가족
- 양미숙 마리아 대녀들의 성가정을 위하여
- 조성윤 바실리오
- 양미숙 성가정을 위하여
- 정다경 마리아 축일 축하
- 김미순 세실리아 생일
- 김종준 가브리엘, 김종제 미카엘 영육간 건강을 위하여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체 분배	복사
1월 1일	백이백	강호영	이경자	이경자	김종선	한서희 김수현 이예진 조성윤
1월 4일	김유화	민완준	장민우	장민우	유정옥 이기원 정다경	한서희 이예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 안에서 평화와 희망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커다란 혼란을 극복하고 새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온 세계가 감탄한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국민 모두가 보여준 책임 있는 행동과 참여의 결실이었습니다. 새 정부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조화로운 사회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굳건히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로서, 언제나 국민의 기쁨과 고통을 함께하며,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고, 사회적 유대를 이루며, 공동선을 위해 충실히 봉사해 왔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사명은, 지난 몇 해 동안 걸어온 '시노드 교회'의 여정에서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특히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1년 앞둔 지금, 우리는 이 여정을 단지 일부 청년들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이를 위한 전 국민적 축제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 여정에 참여할 때,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복돋우며 평화와 공동 번영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더욱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성모님은 우리가 주님의 은총에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이끄시며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시노드 여정 안에서 사랑과 평화를 실천할 때,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의 일상과 세상 안에 서 더욱 생생히 증거되고 드러날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가정 안에 충만히 내리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평양교구장 서리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정순택

*** 오늘 미사 후 떡국 나눔 있습니다.
(친교모임은 없습니다.)**

2026년 1월 1일 떡국 나눔

기쁘게 떡국 나눔을 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떡국 나눔 장소: 큰집, 원조

2026년 부활 세례/견진성사 시작

2026년 세례반/견진반 시작합니다.

교육기간: 1) 세례반: 1/4-3/29

2) 견진준비반: 2/22-3/29

시간/장소: 1) 세례반: 3층 컨퍼런스룸, 1:00 PM~

2) 견진반: 추후 공지

문의: 646. 832. 7397 (Sr. 마리루시)



그림해설

촛불 | 담백한 수묵화에 빨간 낙관을 찍듯이, 여명 속의 성상 앞에 촛불 하나 놓습니다. '어머니!' 하고 부르면, 나도 어미닭의 깃을 파고든 병아리가 되어, 당신의 자녀이고 형제입니다. 기도로 밝히는 새날, 이윽고 사물의 윤곽들이 모습을 드러내면, 정주의 생명들이 색색의 옷을 챙겨 입겠지요. 시작의 시작이요, 마침의 마침인 거룩한 사랑이 내 촛불의 가물거림에 맡겨져 시간의 징검다리를 건너갑니다.

글 · 그림 하삼두 스테파노 | 작가